

휴대폰 주우려다 사망한 형제



중국 북부 한 시골 마을의 형제가 재래식 화장실 변기에 빠진 휴대전화를 꺼내려다 그 아래 갇혀 결국 사망했다.

지난달 31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달 24일 오후 12시쯤 중국 산시성 후옌 마을에 사는 한 남성이 전날 빠뜨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재래식 변기 구덩이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구덩이는 2m로 생각보다 깊었고, 결국 분노에 감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밖에 있던 동생이 형을 구하려 들어갔지만 같이 구덩이에 갇혀서 형제는 허무하게 그곳에서 모두 목숨을 잃었다.

다른 가족들은 화장실에 간다던 두 사람이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재래식 화장실 벽을 부수고, 펌프를 사용해 변기 구덩이를 비워내는 등 구조 활동을 펼쳤지만 너무 늦은 뒤였다.

구조대는 “사람의 배설물에서 발생된 유해가스로 인해 이들이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망 사건은 5년 전에도 같은 마을에서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43세 여성은 재래식 화장실에 빠뜨린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구덩이에 빠졌고, 여성의 남편과 딸이 그녀를 구하려다 빠져나오지 못해 일가족이 모두 사망했다.

한편 중국 전역은 공공 위생을 개선하고자 2015년 4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 아래, 재래식 변기를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화장실 혁명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시골 지역에서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눈물겨운 부성애 ... “딸을 위하여!”

딸을 위한 한 남성의 부성애이 가슴 뭉클하게 한다.

지난 30일 ABC 뉴스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살고 있는 중학생인 네바에하는 학교 졸업식 댄스 파티를 앞두고 지난 달 마음에 꼭 드는 드레스 한 벌을 발견했다. 하지만 가격이 거의 200달러에 달해 네바에하는 가정 형편으로 선뜻 구입하기 힘들었다.

네바에하는 부모에게 “이 드레스가 정말 갖고 싶어요. 우리가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었으나 아빠 리키 스미스(36)리키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형편이 번번히 못한 탓에 딸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사줄 수 없어 가슴이 아팠다.

리키는 평소 패스트푸드점 두 곳과 편의점에서 교대 근무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그는 딸에게 옷을 사주겠다고 약속은 못했지만 딸의 졸업식을 특별한 날로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일주일에 6일, 때로 7일을 일하던 리키는 딸이 원하는 드레스를 구매할 수 있는 돈을 모을 때까지 일하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그리고 딸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드레스를 구입할 수 있었다.



자신의 일터로 딸을 잠깐 부른 리키는 “할머니가 너를 위해 드레스를 사셨어. 네가 원하던 건 아니라도 맘에 들었으며 좋겠어.” 라는 거짓말로 숨겨뒀던 드레스를 살짝 펼쳐보였다. 네바에하는 예상치 못한 깜짝 선물에 놀라 아빠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네바에하는 “가슴이 철렁했다. 오래된 여성복일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다. 난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 아빠 딸이라 너무 행복하다.” 고 말했다.

아빠 리키도 “딸 아이 표정이 정말 인상 깊었다. 딸을 위해 만들 수 있어 나도 행복하다.” 고 답했다.

신발 신은 경찰견 ... 폭염 때문

유럽 전역에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아스팔트가 뜨거워지자 경찰이 경찰견에게 특수 제작 신발을 신겨 야외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 경찰견들의 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스위스 취리히 경찰은 지난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햇빛 속에서 아스팔트를 걸어야 할 때 큰 개는 신발을 신고 작은 개는 주인이 들고 걷는 게 좋다.” 며 소속 경찰견에게 특수 제작 신발을 신겨 작전에 투입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취리히 경찰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람이 아스팔트에 손을 대보고 5초 이상 참기가 어렵다면 개에게도 신발을 신기는 게 낫다고 전했다. 조언했다.

취리히 경찰은 또 “한여름에는 경찰견에게 신발을 신겨왔기 때문에 개들도 익숙하다.” 며 “유리조각 등이 있는 곳에 수색을 나갈 때도 신발을 신고 마약 탐지 때 차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용한다.” 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대형견들을 위해 제작한 신발들이 종종 사용된다. 독일 경찰도 야외 훈련 때 경찰견의 발바닥을 보



호하기 위해 신발을 신기기도 한다.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으면 아스팔트는 표면적은 50~55도까지 상승한다.

www.suhl.com
info@suhl.com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 & 서 법률사무소

- **가정법 Family Law**
이혼, 양육권/방문권, 입양, 리빙트러스트, 혼전(후) 계약
- **이민법 Immigration Law**
가족/취업이민, 신분변경 E-2, H1B, L, O visa
- **민사/형사법 Civil/Criminal Law**
민사소송, DUI
- **상법 Business Law**
법인설립, 계약서
- **번역 업무도 가능합니다**



서자경 변호사
Ja K. Suh, Esq.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Certified by the State Bar of CA
Univ. of Missouri-Columbia 법대 (J.D.)
Univ. of Missouri-Columbia 비평론 석사

서자현 변호사
Ja H. Suh, Esq.

California Western 법대 (J.D. Dean's List)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멤버(AILA)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 협회 위원회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 이사역임
오렌지 카운티 회장단 협회 회원 역임



법률 문제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LAW OFFICES OF
SUH & SUH
A PROFESSIONAL CORPORATION

L.A. & O.C. (714)368-1655
161 Fashion Ln, Suite 111, Tustin, CA 92780

San Diego (858)622-6279
4660 La Jolla Village Dr, #500, San Diego 92122

Vista (760)643-4084
380 South Melrose Dr, #363, Vista, CA 92081